

ICS · ISF, 유조선과 벌크선 공통규칙 논의

연차총회 개최, 통합해사협약 채택 의견교환

국제해운회의소(ICS)와 국제해운연맹(ISF)은 5월22일부터 24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연차총회를 개최하고, 국제해운 문제에 관한 유럽연합(EU)의 역할, 국제선급연합회(IACS)가 검토하고 있는 유조선과 벌크선에 관한 공통구조규칙(CSR), 통합해사협약 채택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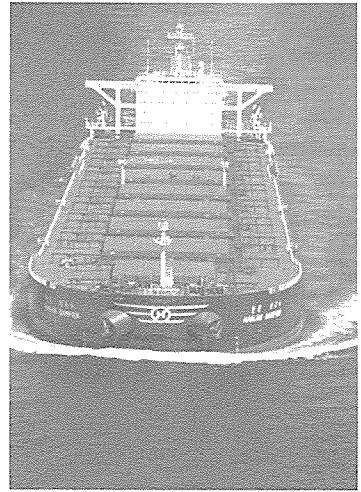
금번 연차총회에서는 국제해운 문제에 관한 EU의 역할과 관련하여 ICS 롤프 웨스트팔 라르센(Rolf Westfal-Larsen) 회장은 EU가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방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인정하지만, IMO에서 정치논리를 가속화하여 의사결정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유조선과 벌크선에 관한 공통구조규칙에 대해 ICS는 선급별로 각기 다른 규정을 통일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통구조규칙을 개발하고자 하는 IACS의 노력을 환영하며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ILO 통합해사협약과 관련해서는 60개의 해사협약을 하나로 아우르는 새로운 통합협약에 대해 라

르센 회장은 동 협약이 국제적으로 공통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의미있고 실질적이어야 하며, 모든 정부들이 비준하고 발효시킬 만큼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유럽 정체현상 최소 2008년까지 지속 전망 2010년 이후 항만확충으로 상황 호전될 듯

로테르담 Erasmus 대학의 Martin Illmer에 따르면, 주요 북유럽 컨테이너 터미널의 정체현상이 적어도 2008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며 2010년 이후로는 계획된 항만 발전 및 확장이 상황을 호전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항만 이용률이 70%를 초과할 때 정체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으며 대다수 북유럽 항만들은 이미 이를 초과했으며 84%를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계획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최근 수요 예상 하에서 평균 이용률은 65%로 하락할 것이며, 이 프로젝트에는 독일의 Hamburg, Bremerhaven, JadeWeserPort, 네덜란드의 Rotterdam과 Amsterdam, 벨기에의 Antwerp, Zeebrugge, 프랑스의 Le Havre, 영국의 Felixstowe, Harwich, London Gateway가 포함된다.